

가래

사순 제5주일

기초 자료

십자가, 영광의 자리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

무덤에서 되살아난 이스라엘

✓ 무덤 : 이스라엘의 유배 상황 비유

=>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죽음을 맞게 되어 무덤에까지 끌려왔다는 것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주님의 기도 中)

=> 무덤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시어

하느님만이 참된 주님이심을 드러내어 달라는 기도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영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 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에제 37,14)

=> 이스라엘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섰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오신다.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로마 8,10)

✓ 의로움 = 당신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하나님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징, 라자로 이야기

오늘 복음은 예수님을 통하여 무덤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 내겠다는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줌

"그 병은 죽을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요한 11,4)

=> 요한 복음서 전체의 신학적 주제와 매우 잘 연결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
라자로의 병과 죽음 =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

✓ 라자로의 병과 죽음 =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

유다로 가자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요한 11,9)

=>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 사람은 낮에 걷는 이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부족한 믿음을 드러내는 마르타와 마리아

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죽음이 하느님 영광의 자리라는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 11,21)

=> 죽음을 피해야만 하는 것, 주님 부재의 결과로 이해하는 모습

십자가로 되살리시다

"...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요한 11,45)

=>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국 그분 영광의 자리라는 것까지는

깨닫지 못함

주님의 부재가 가장 극명하게 여겨지는 그 순간
하느님의 영광을 가장 깊이 체험하는 이들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

십자가, 우리 영광의 자리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며,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 영광의 자리임을 믿으라고 초대받는 우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요한 11,25-26)